구원받고 기껏 악한 자와 결탁하나

(열왕기상 22:41~53)

41.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사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42.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삼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43.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44.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45.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6.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7. 그 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48.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49.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50.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고 기껏 악한 자와 결탁하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구원받고 기껏 악한 자와 결탁하나'
오늘 본문이 여호사밧 왕과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의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44절에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에 끌려서 선민의 나라인 북 왕국 이스라엘을 바알숭배의 골수분자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에 가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어쨌든 아합 왕과 화평하게 지냈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의 일생을 요약하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선민의 역사 속에서 3대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왕이 어떻게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제목의 '악한 자'라는 말은 본문과 연관하여 끌어들인 말이 아니고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 왕을 선지자 예후가 나무랄 때에 대하19:2절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는 말을 한 것에 기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와의 결탁을 피하기 위해서 악함의 유래와 정의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악함이 무엇인가를 태초의 타락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은 언뜻 생각하기에 고리대금업자나 마피아 활동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물론 그것들도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시려는 악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악함에 있습니다.
태초에 타락하여 기쁨의 땅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즉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다는 것은 이제 삶으로부터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말씀이 뜻하는 대로 기쁨은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생명은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고 살아야 될 이유로서 살아야 될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얻으면 내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이 주어지고 기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대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이 주어졌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기쁨의 땅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판단이 필요한 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 판단이 필요한 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기 위하여 인격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질 때에 기쁨을 느끼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기쁨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대로 나를 장갑삼아 일하시는 삶이 타락 전의 삶이었습니다.
마음은 채워지면 기쁨을 느끼는데 이 세상 것들은 가졌을 때에 잠시 기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쁨이 사라지므로 또 다른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끝입니다.

문제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본래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판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을 가졌어야 했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갖지 않고도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꾀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서 기뻐할 수 있을지의 판단은 너에게 달렸고, 돈이나 보석 일류대학 자녀 배우자 등을 통하여 마음을 채우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쫓겨나서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은 잘못함 그 자체를 반성하고 잘못으로 인한 결과에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함 자체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쁨의 땅 에덴에서 쫓아냈다고 해서 내가 기쁨을 못 얻을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기쁠 줄 아셨다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 벌면 기쁘고 내 자녀가 일류대학 들어가면 얼마든지 만족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이거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악함입니다.
에덴 밖에서 내가 에덴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 기쁨의 땅과 기쁨의 삶과 만족의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악함인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아버지가 말썽 부리는 아들을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도 잠 못 이루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 돌리고 ‘아따, 그 잘난 집하나 있다고 유세를 떨기는? 여기 아니면 이 한 몸 잘 곳이 없을까?’하고 친구네로 가버린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악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함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거나 십계명을 어기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과부가 재산도 없고 명성도 없고 소박한 삶 가운데서 외아들 하나를 의지하여 살아야 될 이유로 삼고 그로 인해 기쁨을 얻으며 살면 이것이 지독한 악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사기를 치지도 않았고 남에게 못할 소리도 하지 않았으며, 아들 하나를 만족하고 살았기에 소박하고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게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마음자리에 아들을 넣고 아들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외아들이라는 아무 힘도 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여긴 것이니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렇다면 ‘악한 자와의 결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찰떡 같이 붙어버린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악함이고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세상에 악하지 않은 자가 별로 없습니다. 남편을 보아도 사업이 안 되면 울고 잘 되면 웃는 사람이라면 악한 자입니다. 자녀가 직장에 가서 연봉이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 믿고, 연애할 때에 상대가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면 다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이들과의 관계를 피하며 살 수 있겠냐는 것인

데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아람을 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일 때에 앞서 본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여호사밧 왕은 남 왕국 유다에서 아버지 아사 왕에 이어서 모든 우상을 타파했던 종교 개혁자였고, 아합 왕은 악녀 이세벨의 충동에 이끌려서 선민 이스라엘을 바알숭배의 왕국으로 만든 역대의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여호사밧 왕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이미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정략결혼을 이루었던 상태였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을 했을지라도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 원해서 사백 명의 선지자를 불렀고, 그중의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만들어 와서 시청각적으로 아합에게 칭의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의심스럽게 여겼던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를 찾아서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가 왔습니다. 미가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천상회의를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며 길르앗 라못을 향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밝히고 아합이 죽을 것까지도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예언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아람 군대의 병거 지휘관들은 아합 왕만을 죽이려고 집중적으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으로 오인해서 공격하여 죽일 뻔했으나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도우시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간신히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은 뒤에도 그 아들 아하시야와도 결탁을 하여 상선의 배의 선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것도 파괴하십니다.
이처럼 악한 자와 결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악한 자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진행 중일 때에 그에 말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인 아하시야도 악했기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말려들어 선단이 다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우상들을 타파한 것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들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나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이를 가는 자들일 수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도 악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에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악

한 자입니다. 심지어 나와 있으면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악한 자인데 나를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인데 신격화가 악함입니다.
이렇게 주변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나와 공존하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호사밧 왕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여호사밧 왕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건이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종교적인 영역의 삶의 부분에서만 그랬던 것입니다.
아합과 결탁한 이유는 국내의 정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연합을 생각했습니다. 에돔은 정복을 해서 섭정 왕을 세웠는데 아람과 북방의 앗수르가 문제가 되어서 북 왕국 이스라엘을 방파제로 삼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충족되어야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겠다고 판단을 해서 내 필요를 내가 생각해 낸 것입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과 탄탄한 결합을 맺으면 앗수르와 아람이 침공할 때 굉장히 유효하겠다는 이해타산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의 삶에 여호와 신앙의 생활화에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이 생긴 부분에서 여호와 이외의 다른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데 악한 자들과의 결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경건하게 생활하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악한 자들과의 결탁이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십자가 복음 신앙과는 다른 영역이라고 무의식중에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생활화에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에서는 반드시 악한 자와의 결탁이 일어나고,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때에 내가 말려들게 되어 결국 나의 삶의 평안은 깨지게 됩니다. 아무리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앉아 있으면 세상을 잊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가도 삶으로 나가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는 사장님은 정직하고 세금도 잘 내고 사업을 잘해서 흑자경영을 함으로 기뻐하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건전한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사업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체할 만큼 신격화해버린 지독한 악인인데 이러한 사장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장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럼으로써 사장님과 회사에 대해 내 마음이 죽고 승진에 대해서도 죽고 월급에 대해서도 죽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사장님과 대면하면 사장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에 사장님을 만나거나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나도 말려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선민의 사명은 직장에 나가서 승진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악인과 결탁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과 과제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우상을 타파하여 머리카락만큼의 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관계를 자기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호와 신앙이 미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채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나 아람과 앗수르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참 에덴을 구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을 당신의 뜻대로 처리해 나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생활화가 이 영역에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악인들과 결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내칠 것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 눈 밖에 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할 때에 기껏 구원 받아놓고 악인들과 결탁합니다.
돈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내가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사장님이나 회사나 월급조차 없어도 된다며 만용을 부려서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며 외치시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삶의 모습이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해야 할 것 같은데 사자 밥이 되거나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떼어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목표점을 알고나 가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그러한 영역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알고 가야만합니다.
생활화하지 않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생활화에 구멍이 뚫리면 반드시 악인과 결탁하게 되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적인 삶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은 깨질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구원받고도 악인과 결탁하는 영적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딱 한 가지만 구합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100%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